

'한 겨울의 열병' 신춘문에 계절이 왔다

매년 겨울이면 열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 한 자 한 자 썩내려가며 신춘문을 준비하고 합격 통보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예비 문인들이다.

일간지의 신춘문에는 보통 12월 10~20일 사이에 마감된다. 당선 소식이 오면 새해 벽두 자신의 이름·사진·글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지만 낙방한 대부분 응모자는 속절없이 1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올해 신춘문을 주최하는 신문사는 광주일보를 포함해 22곳가량 된다.

문인 120여 명 배출

광주·전남작가회의 관계자는 "신문사별로 500편~1천300편가량 작품을 투고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중복 투고자를 배제하더라도 한 해 2만여 명이 응모할 것"이라며 "신문사별로 시·소설·희곡·동화 등 분야별 당선자 3~7명을 뽑는다고 하면 신춘문을 통해 120여 명의 새내기 문인들이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신춘문을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10년째 투고하고 있는 김영수(35·광주시 동구 소태동)씨는 철저히 혼자서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2편의 소설을 구상, 더위와 싸우며 글을 써 신문사 2곳에 보낼 계획이다. 그나마도 마감 10여일 전부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투고할 수 있다는게 김씨의 설명이다.

주부 차진희(34·가평)씨는 네티즌 검증을 통해 작품을 선별, 투고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지난해 12월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심사위원들이 '2008 신춘문예' 본심 심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석제(소설가), 나희덕(시인), 이문재(시인), 이승우(소설가), 김성범(동화작가)씨.

주부·회사원 등 2만여 명 응모

3~4명씩 합숙하며 작품 준비도

호화하고 블로그(blog) 등에 작품을 올려놓은 뒤 네티즌들의 평을 먼저 듣고 응모를 하고 있다. 작품을 읽은 네티즌들이 "소재가 누구누구의 소설과 똑같다" "문장에 오타가 있다" 등 댓글을 달아주기 때문에 작품을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에는 1만5천512개, '네이버'에는 9천112개, '싸이월드'에도 7천552개의 문학관련 카페가 개설돼 있다.

문예창작과 등 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고통과 기대가 교차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

재 문예창작과가 개설된 대학은 전국의 59곳. 광주·전남지역에는 광주대·광주여대·순천대·조선대 등 4곳이다. 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재학생과 졸업생을 포함해 해마다 재학교당 30~40명의 학생들이 신춘문을 준비하고 있다.

대세는 역시 일간지

이들은 주로 수업 중 발표했던 작품을 10월부터 퇴고와 개작을 하기 시작한다. 독학을 하는 지방생들에 비해 소모임과 교수로부터 객

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3~4명이 원룸·자취방 등지에서 합숙을 하며, 각 신문사의 신춘문에 경향과 예상 심사위원의 작품 스타일을 연구하기도 한다.

또 작품을 보낸 뒤에는 당선소감을 미리 써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역시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짜며 글을 쓰기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광주대 문예창작과 이은봉 교수는 "문예지나 각종 문학상 등이 많이 생겨 등단의 기회가 많은데도, 여전히 예비문인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신춘문을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9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모 부문은 시, 단편소설, 동화이며 응모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다. /이문재기자 emlee@kwangju.co.kr

시립소년소녀합창단 100번째 무대

6일 광주문예회관...역대 지휘자·단원 등 50여 명 함께 공연

오는 6일 오후 5시 광주문예회관대극장에서 열리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사진·단장 박호진) 100회 정기연주회 무대에 서는 테너 김희주씨와 소프라노 김윤화씨는 감회가 남다르다. 초등학교 시절, 바로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을 하며 성악가로의 꿈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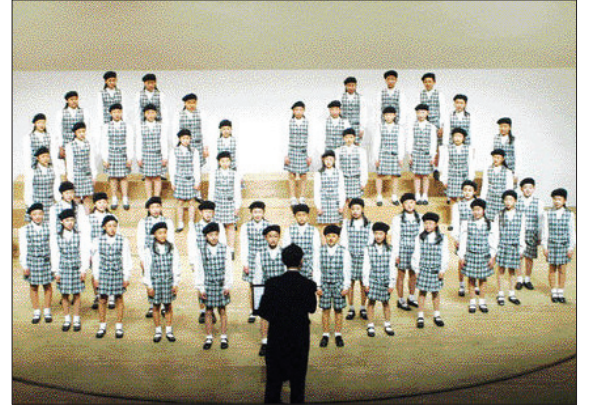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00회 정기연주회 '우리들의 100번째 합창 이야기'를 개최한다.

지난 1976년 창단한 소년소녀합창단은 초대지휘자인 유영장(1976~1984)씨를 비롯해 김운영(1985~1998), 윤영문(2000~2005)씨 등이 단장으로 재직하며 500여차례의 공연을 펼쳐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김운영·윤영문씨 등 역대 지휘자, 안무자, 반주자와 함께 합창단을 거쳐간 30~40대 단원 50여명이 오묘한 호흡을 맞춘다. 공연 레퍼토리는 '내 맘의 갈뿔', '강아지 해피', '그대의 날을 부르며' 등이 다.

소년소녀합창단은 창단 후 곧바로 미국과 일본 공연을 떠나고, '호두까기 인형'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사운드 오브 뮤직', '스쿠루지' 등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근 10여년간 다소 주축했던 소년소녀합창단은 올해



정윤성국제음악제 중곡 남창 공연에 참여하는 등 활기를 띠고 있으며 내년에는 오 랜만에 창작뮤지컬을 준비하는 등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1월 두차례 신입단원을 뽑는다. 매주 두차례(화·목요일) 정기연습을 진행하며 초등학교 1학년~3학년들이 참여하는 '동요교실'(매주 수요일)도 운영중이다. 티켓 가격 5천원, 3천원. 문의 062-529-1125.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예향 광주' 부끄러운 시향

〈광주시립교향악단〉

■ 손재홍 광주시의원 지적

단장 수개월째 공식 부실 운영

전국 교향악 축제도 참가 못해

광주시립교향악단의 단장이 수개월째 공식으로 방치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손재홍(민주·동구 2) 의원은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시의 지원 의지 부족과 운영 미숙으로 교향악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지휘자 연봉이 6천200만원으로 부산 10만달러, 대구 2억원, 인천 1억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고 단원 보수 역시 울산을 제외하고 최하위

인 상황에서 예산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창작공연과 해외공연 실적도 저조하고 전국단위 행사인 교향악 축제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교향악단을 '문화수도'에 걸맞는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작 활동 및 국내외 교류활동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소년예술단 창설 등을 통한 인재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측은 이와관련, "지난 10월 객원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단장으로 위촉하려 했지만 근무여건 문제로 지난달 공모에 들어가 이달 중순께 단장을 최종 위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과 국극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단체에 286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울돌목에 핀 해당화-어란'

도립국악단 국악 뮤지컬 6일 공연



조선 수군에게 알려줘 명량대첩에서 승리하는 데 일조를 한 후 자결한 인물로 전해내려오고 있다.

소설가 박의진씨의 작품을 김 단장이 각색했으며 80여명이 단원들이 출연하는 매머드급 무대로 꾸며진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올 5월 새로 부임한 전남도립국악단 김만석 단장은 국악이 마니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예술 장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늘상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남도국악의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실험적인 시도가 가미된 도립국악단의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은 김단장의 숙제 중 하나였다.

국립극장, 서울정동극장 재직 당시 많은 히트상품을 만들어낸 김 단장이 선택한 게 '국악 뮤지컬'이다. 전남도

립국악단이 오는 6일 오후 5시 목포시 민문화센터에서 처음으로 국악뮤지컬 '울돌목에 핀 해당화-어란'을 무대에 올린다. '어란'은 기존 창극 중심의 딱딱한 공연에서 벗어나 젊은 감각과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작품으로 관객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재는 해남의 논개로 불리는 '어란' 설화에서 따왔다. 해남의 기녀로 정유재란 당시 해남에 머물던 왜장의 사랑을 받았던 어란은 군사 기밀을

故 이청준 마지막 소설 '신화의 시대' 출간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소설가 고(故) 이청준 선생이 지난해 계간지에 발표한 마지막 장편소설 '신화의 시대'(물레 펄럼·사진)가 3일 출간됐다.

'신화의 시대'는 학술·문예 계간지인 '본질과 현상'에 2006년 겨울호부터 2007년 가을호까지 네 차례에 걸

쳐 연재됐던 소설로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이번엔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나왔다.

그동안 이 작품의 연재 사실이 문단이나 연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탓에 고인의 마지막 작품은 지난해 가을 계간 '문학의문학'에 기고한 단편 '이상한 선물'로 알려져



왔다. 이번엔 출간된 '신화의 시대'는 단행본 세 권 분량 이상의 긴 소설을 쓰지 않은 작가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장편 소설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연합뉴스

<p>메가박스 구.원인국악사거리 ☞061-544-0600</p> <p>1관 순정만화 (12세) 2관 과속 스캔들 (12세) 3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 4관 쏘우 V (18세) 5관 기방난동사건 (15세) 6관 엔티크 (15세)/맥스페인 (15세) 7관 순정만화 (12세) 8관 미인도 (18세) 9관 커넥트 (12세)</p> <p>•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게 한함) : 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p>	<p>엔터 시네마 충정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미인도 (18세) 2관 아내가 결혼했다 (18세) 3관 소년은 울지 않는다 (15세) 4관 서양골동양과자점 엔티크 (15세) 5관 바디 오브 라이즈 (12세) 6관 맘마미아 (12세) 7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좌석의 주차장 300대 • 금로 씬아싱</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순정만화 (12세) 2관 쏘우 V (18세) 3관 미인도 (18세) 4관 미인도 (18세) 5관 엔티크 (15세)/눈먼자들의 도시 (18세) 6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7관 과속 스캔들 (12세) 8관 맥스페인 (15세)/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9관 기방난동사건 (15세) 10관 과속 스캔들 (12세)</p> <p>• 호년 최대 주차장 •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스점 (10개관) 잡편리 상영중 상영시간별 관람 가능 -11시~14시</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순정만화 (12세) 2관 미인도 (18세) 3관 기방난동사건 (15세) 4관 엔티크 (15세)/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5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 6관 과속 스캔들 (12세)/기방난동사건 (15세) 7관 과속 스캔들 (12세)</p> <p>• 매일실마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특시 사무시 (오전 9시~오후 11시)</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p>하미 시네마 전대후문 하미포렉스 ☎ 267-7777</p> <p>1관 맘마미아 (12세) 2관 맥스페인 (15세) 3관 엔티크 (15세) 4관 뱅크잡 (15세) 5관 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6관 눈먼자들의 도시 (18세) 7관 순정만화 (12세) 8관 과속 스캔들 (12세) 9관 미인도 (18세) 10관 기방난동사건 (15세)</p> <p>• 500여대 넓은 주차장(8시간 무료) • 385 매일 실마 • 이동통신사 & OK 캐시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88-5757 • 하미 볼링장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p>	<p>제일 시네마 충정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860</p> <p>1관 과속 스캔들 (12세) 2관 기방난동사건 (15세) 3관 순정만화 (12세) 4관 미인도 (18세) 5관 엔티크 (15세)/007퀀텀 오브 솔러스 (15세) 6관 쏘우 V (18세)</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서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227-1960</p>
--	--	---	--	---	---